

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

프로젝트 헤일메리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

병가 기간동안 후배가 보내주어서 읽었습니다.
수술 끝나고 한 동안 피곤해서 누워만 있었는데 그 때 같이 시간을 보낸 재미 있는 소설입니다.

**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**

로키는 등딱지를 한쪽으로 기울인다.
"야, 너 얼굴에서 물 새! 아주 오랫동안 못 본 표정인데! 다시 알려줘. 그게 기분 좋다는 뜻이야, 슬프다는 뜻이야? 둘 다 가능하했지?"
"당연히 좋은거지!" 나는 흐느낀다.

나는 '내 살 버거'를 무척 좋아한다.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.

"조심해" 로키가 말한다. "너는 이제 친구."
"고마워." 내가 말한다. "너도 친구야."
"감사"

"좋다/좋다/좋다"

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

이야기 자체도 흥미롭고 재미있었지만, 가장 좋았던 부분은 보는 방법도, 말하는 방법도, 생김새도, 행동 양식도 모두 다른 두 종족이 만나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었다.

우리와 지능이나 과학수준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지적생명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유쾌한 소설이었다.